

강원 영동지역

경제일지

2025년 1월 중

강원 영동지역 경제일지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와 통계연구반이 협업하여 일 평균 약 4,000여 건의 경제 기사를 분석하여 작성됩니다.

1.7일 다 뚫리는데...강원 북부권 동해안 교통망은 지지부진

- 강원지역에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의 경우는 교통망 구축이 더딘 상황
 - 앞서 동해고속도로 동해~강릉과 강릉~양양이 각각 2004년과 2009년, 양양~속초 구간이 2016년 개통됐으나 속초~고성 구간은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인 사전타당성 검토단계
 - 동해선 강릉~제진 구간은 최근 9개 공구 모두 착공에 들어갔지만, 토지 보상 등 문제로 개통 시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철도망 구축도 더딘 상황
- 고성군은 지역 균형발전과 서울양양고속도로, 동해북부선 철도 등 입체적인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
 - 함명준 고성군수는 "동해안 고속도로망 가운데 유일하게 단절된 고성을 연결하는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광역 교통망 완성을 위한 결실이 될 것"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

1.14일 "강릉으로 오이소" 동해선 개통 호재 맞아 홍보 총력전

- 강원 강릉시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부산·울산 등 경상권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,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홍보전에 돌입
 - 국내 여행 인플루언서 및 일본·대만 유튜버와 협업해 강릉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, 온라인 커뮤니티 및 강릉선 매거진을 활용한 연중 홍보와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 외부 광고도 진행

- 2월 8일에는 강릉시와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부산을 방문하여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,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현장 홍보를 실시할 예정
- 또한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행사와 협력, 동해선 관광상품을 개발·운영하고, 동해안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강릉바우길을 1박 2일 동안 걸을 수 있는 도보 관광상품도 운영

1.24일 ‘영월~삼척고속도로’ 추진 확정…7조 4천억 사상 최대 대역사(大役事) 펼쳐진다

□ 기획재정부가 23일 영월~삼척고속도로 신설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심의·의결함으로써 강원 역사상 최대 규모 SOC 사업인 ‘영월~삼척고속도로’ 건설이 확정

-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총 5조 6,167억 원을 투입해 영월에서 삼척까지 70.3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
 - 지난해 연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제천~영월고속도로(1조 7,165억 원)를 포함하면 제천~영월~삼척 간 7조 4,000억 원대의 대역사(大役事)가 이뤄짐
- 험난한 산악지형을 지나고 구조물이 많아 건설단가가 타 지역에 비해 30%이상 높았지만 정책성,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높은 타당성을 확보
 - 정부는 오히려 예타 신청 당시에 비해 총 사업비 4,500억 원을 증액해 예타 통과를 결정